

<열린지성>에서는 교내 화제의 인물을 만나보는 새로운 코너를 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심태은씨(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입니다.

심태은씨는 서울대에서 봉사, 선행, 효행 정신을 실천한 학생에게 포상하는 '관악봉사상' 상금 100만원 전액을 불우한 이웃을 위해 기부하여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심씨는 “작은 일이 세간에 알려지게 되어 부끄럽다. 이를 계기로 더 많은 사람들이 선행을 베풀게 되었으면 한다”는 말로 운을 떼었다.

먼저 선행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묻자 그는 제천의 아동복지 기관에서 경험했던 일을 들려주었다. 그곳에서 손과 발이 불편한 아이들이 서로 돕고 생활하는 현장을 보고 건강한 몸으로 남을 도울 줄 몰랐던 자신을 되돌아 보게 되었다고 말한다.

봉사 활동에 관심은 있지만 선뜻 실천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심씨는 “봉사 활동을 통해 우리가 누리지는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봉사 활동은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조언한다.

현재 심씨는 저소득층 아동들의 정서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인 ‘원예 치료’ 자원 봉사자로 일하고 있다. 원예 치료는 식물을 통해 정신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활동이다. 그는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는 활동의 보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더 많은 이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나눔의 생활을 실천해나갔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혔다.

● 글 : 김새미나 / 사진 : 이수정